

방산업체 금호타이어 중국에 넘어가면 특허·방산 핵심기술 유출 ‘후폭풍’ 우려

박삼구 회장 “법정 소송 등 모든 방법 강구”

제2 쌍용차 되나...대선 주자들도 반대 목소리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최후 통첩이 무위로 끝나고 재임찰을 요구하면서 금호타이어 인수전이 2라운드 맞이 하게 됐다. 그 동안 채권단과 박 회장의 다툼이 컨소시엄 구성 허용 여부를 둘러싼 단기전 성격이었다면, 앞으로는 재임찰 요구와 경우에 따른 법적 소송 제기 등 장기전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18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 회장의 컨소시엄 구성 허용 및 매매조건 확정과 관련한 최후통첩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임찰을 요구하고 나섰다. 산업은행이 컨소시엄 불허 입장을 재확인하며 박 회장 측에 공을 넘기자, 박 회장은 재임찰 요구로 다시 산업은행에 공을 넘긴 셈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우선매수권 포기하되 모든 방법 강구”=금호아시아나 그룹은 더블스타에게만 컨소시엄을 허용하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매각을 중단하고 다시 입찰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고나온 것이다.

이는 금융권을 상대로 곧바로 법적인 다툼을 펼치는 것이 재무상태가 좋지 못한 금호아시아나그룹 전체의 경영활동과 미래발전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금호아시아나측은 “이러한 부당하고 불공정한 매각이 진행되어 금호타이어의 기업가치와 성장이 저해되는 경우에는 법적인 소송을 포함해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법적 소송 가능성은 열어놨다. 지금 당장은 금호타이어 매각 절차의 문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지만, 산업은행이 불공정한 매각을 중단하는 동시에 재임찰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마지막 카드로 법적 소송에 돌입하겠다는 생각으로 해석된다.

금호타이어 채권단과 더블스타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SPA)이 완료되면 ▲금호 상표권 20년 사용 ▲차임금 만기연장 등 선협조조건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 선협조조건 중 논란이 되는 부분은 금

호 상표권 사용이다. 산업은행은 더블스타에 최대 20년(5+15 조건) 동안 금호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상표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금호산업과 이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박 회장의 재임찰 요구에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으로 보인다. 이로써 금호타이어의 채권단과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가 잔금 지급, 정부 승인 등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게 되면 금호타이어의 새 주인은 더블스타가 된다.

◇“하필 중국에... 후폭풍 우려”=상황이 달라지면서 업계를 중심으로 ‘매각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허와 방산(防産) 등 핵심 기술 유출, 인력 구조조정 등이 이뤄질 수 있고 과거 쌍용차를 인수한 상하이차처럼 ‘떡부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국내 업계는 금호타이어가 더블스타로 넘어가면 무엇보다 핵심 기술이 고스란히 중국으로 빠져나가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말 현재 874개의

특허를 갖고 있다. 이 가운데 전 세계 시장에 통용되는 국제 특허도 5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호타이어는 국내 타이어 기업 중에 유일하게 방산업체로 지정돼 있다는 점도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다.

금호타이어는 현재 우리나라 군에 전투 기용 및 군용 트럭 타이어를 납품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 기업이 방산물자 생산 기업을 인수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더욱이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으로 여론이 나빠진 상황이라 야당의 대선주자들도 금호타이어를 중국업체에 넘기는 것에 연이여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금호타이어 매각 신청이 들어오면 국방부, 방위사업청과 협의해 판단을 내리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자산규모가 금호타이어보다 훨씬 작고 글로벌 기업 운영 경험이 거의 없는 더블스타가 앞으로 정상적인 투자를 진행해 나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48.46 (+2.70)	금리 (국고채 3년) 1.68% (0.00)
↑ 코스닥 634.73 (+5.26)	↑ 환율 (USD) 1142.40원 (+4.70)

고용시장 찬바람 여전

올 전년비 7% 감소 전망...채용계획 기업 53.7% 뿐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기업 인력 채용시장도 끄떡 없어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신규인력 채용 규모는 작년 대비 7%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은 전체의 절반을 겨우 넘기는 수준으로 조사됐다.

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100인 이상 기업 258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신규인력 채용동태 및 전망조사’에 따르면, 올해 기업들의 신규인력 채용(예상) 규모는 전년보다 6.6%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규모별로는 직원 300명 이상 기업의 채용규모가 전년보다 5.8% 줄어들 전망이다. 100~299명 기업은 상황이 더 좋지 않아 채용규모를 전년보다 14.8%가량 줄일 것으로 보인다.

300~999명 기업의 전년 대비 채용규모 증감률은 -8.5% 수준이고, 1천 명 이상 기업의 증감률은 -3.9%로 조사됐다.

올해 대졸 신규 채용 규모는 전년보다 7.3% 줄어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일 예정이다. 고졸 채용은 -7.9%로 4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인력 채용 계획(또는 완료)이 있는 기업은 전체의 53.7%로 나타났다. 2011년 64.2%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채용계획 미결정·유동적’이라고 응



답한 기업은 25.3%였고, ‘채용계획이 없다’고 답한 기업은 21.0%로 2011년 9.9% 이후 가장 높았다.

채용계획이 없다고 답한 기업의 비중은 전년보다 3.1%포인트 늘었다. ‘미결정 또는 유동적’과 ‘채용계획 있음’은 전년보다 각각 0.6%포인트, 2.5%포인트 줄었다.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않거나 규모를 줄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46.6%가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실적 악화’라고 설명했다.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21.2%), ‘정년 60세 시행에 따른 신규 채용 여력 축소’(14.0%) 등의 답이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광주 소매유통업 경기는 아직 한겨울

광주상의 2분기 전망 72

전분기보다 7P 떨어져

광주지역 올 2분기 소매유통업 경기가 1분기에 이어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18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역 107개 소매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 2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전분기(79)보다 7포인트 하락한 ‘72’로 집계됐다.

이 같은 전망지수는 전통적으로 2분기에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연휴 나들이 활동 증가 등으로 소비회복 기대감이 높아지지만 올해는 내수부진과 소비침체, 국내외 경제 불안감 등이 겹쳐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광주지역 경기전망지수는 작년 1분기(95)부터 6분기 연속 ‘100’ 이하를 밑돌면서 경기불황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

지난 1분기는 설 명절에도 불구하고 특수 실증으로 RBSI 실적치는 작년 4분기(63)보다 ‘6포인트’ 하락한 ‘57’로 집계됐다.

대형마트(70→42)와 편의점(30→45)이 특히 고전한 가운데, 모든 업체가 기준치

(100)를 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 2분기 업체별 경기 전망을 살펴보면, 전자상거래(110→113)를 제외한 모든 업

태들이 소비부진과 상권 내 경쟁심화로 2분기 경기를 어렵게 전망했다.

대형마트(71→78)는 경기침체와 온라인 쇼핑패널과의 가격경쟁으로 매출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백화점(86→52)은 광양, 군산 등 인근의

대형 아울렛 오픈에 따른 상권변화로 고객 이탈 우려가 커졌으며, 편의점(65→83)과 슈퍼마켓(100→98)은 계절상품의 매출회복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과 동네 상권 경쟁 심화로 부정적 전망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성기자bigkim@



나들이 모자로 옛지있게 ~ 19일 광주신세계 관계자가 최근 잘 팔리고 있는 모자를 소개 하고 있다.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야외활동을 위해 모자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자동차 수출 2개월 연속 증가

3월 친환경, 중·대형차 인기전년비 4% 늘어...내수는 2.9%↓

자동차 수출이 친환경차, 중·대형차를 중심으로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완성차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수출액이 지난해 3월보다 4.1% 늘어난 41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출 대수는 24만8618대로 5.1% 감소했지만, 수출 단가가 높은 친환경차와 중·대형차 수출이 늘면서 수출액이 증가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등 친환경차는 니로, 아이오닉 출시 이후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 호조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 친환경차 수출은 1월 1만79대, 2월 1만3477대, 3월 1만4907대로 꾸준히 늘고 있다.

반면에 내수판매는 지난해 3월보다 2.

9% 감소한 16만8990대에 그쳤다.

지난해 시행된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기저효과로 분석된다.

국산차 판매는 신차 출시 등의 영향으로 비교적 소폭 감소(-1.4%) 감소했지만, 수입차 판매는 일부 업체의 영업정지 등이 겹치면서 10.8% 줄었다.

생산은 내수판매와 수출 물량 감소 등으로 2.7% 감소한 40만6897대로 집계됐다.

자동차부품 수출은 국내 완성차 현지 공장의 생산 감소로 인해 3.4% 감소한 22억 달러에 머물렀다.

북미(-12.3%), 아시아(-13.5%) 등 완성차 판매가 부진한 지역 중심으로 수출이 감소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주민 행복중심의 희망의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고흥군의의회
GOHEUNG-GUN COUNCIL

http://igoheung.com